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2024. 5. 1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I . 추진배경	1
II .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6
III .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	7
1. 지역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	7
2. 지역 전문서비스(법률·회계, 디자인 등) 경쟁력 강화	10
3.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인프라 조성·정비	12
4. 지역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14
IV . 기대효과	16
V . 향후 추진계획	17

I. 추진배경

□ (창업생태계)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

○ (규모) 벤처·창업기업 수, 벤처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 창업기업 : ('06년) 5만개 → ('21~'23년 평균) 13.2만개 (약 2.6배 수준)
벤처투자 : ('06년) 0.7조원 → ('21~'23년 평균) 13.7조원 (약 20배 수준)

○ (위상) 유니콘 기업 증가 등 세계적 수준으로 위상 지속 상승*

* 세계도시 창업생태계 평가에서 서울이 12위에 선정('23년, Startup Genome)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수 크게 증가('16년 2개 → '23년 24개)

□ (불균형 성장) 수도권 중심으로 창업생태계가 형성되어, 벤처 투자 등 지역의 창업생태계 자생력은 수도권과 큰 격차

○ 벤처투자 규모 등 창업생태계 주요 성과가 수도권에 집중*

* 벤처기업 수 : 3년 미만 벤처기업의 70.7%가 수도권 소재('23년, 벤처기업협회)
벤처투자 : 전체 벤처투자 중 수도권 비중은 약 80% 수준('23년, 벤처투자종합포털)
유니콘 기업 : 국내 24개 유니콘 기업 중 23개가 수도권 소재('23년)

□ (불균형 원인) 지역에는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량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제기*

* 벤처·창업기업이 성장(scale-up)하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투자기관 등 창업생태계 구성 요소가 필수적 (과학기술정책연구, '20년)

○ 투자·보육 및 전문서비스(법률·회계, 컨설팅 등)가 수도권 집중*

* 전체 벤처투자회사의 90.7%, 엑셀러레이터의 61.5%가 수도권 소재('24년)
전문, 과학·기술 분야 사업체 수(만개, '22년) : (수도권) 14.6 (비수도권) 8.1

○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는 영세한 규모, 인력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 제고에 한계

* 예)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시, 투자 역량, 펀드 결성 능력(대형 출자자 확보 등), 운용인력 등을 중점 심사하여 수도권 소재 대형 투자·보육 기업에 유리

👉 『지역에서 창업 → 지역에서 성장 →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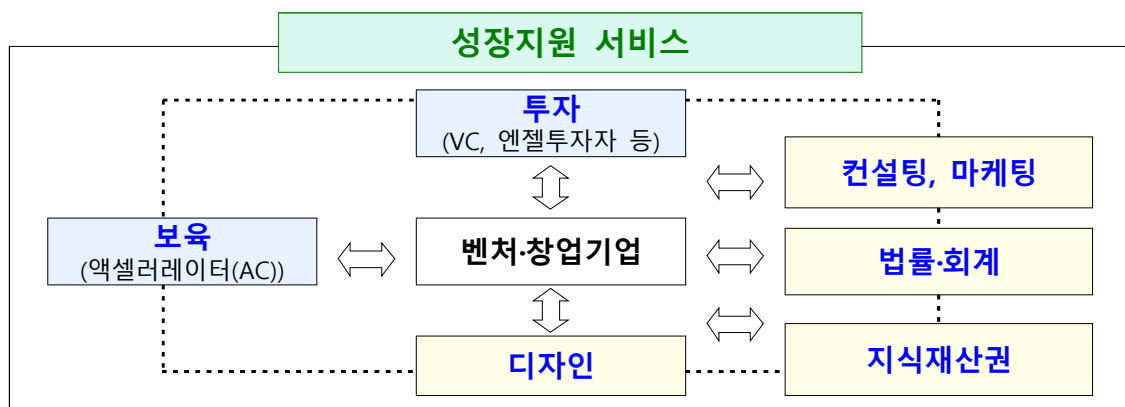
[참고 1] 성장지원 서비스(scale-up supporting services)

☐ 개념

- 벤처·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지식 기반 서비스(Knowledge Intensive Service)

☐ 유형

- ① 투자(벤처캐피탈(VC), 엔젤투자자 등)·보육(엑셀러레이터(AC)),
② 전문서비스(법률·회계, 컨설팅, 디자인, 지식재산권 등)



[참고 2] 보스턴 창업생태계 성공요인 및 시사점

* '16년 이후 생명공학 전문지(GEN) 선정 '세계 바이오 클러스터 1위' 유지

☐ 성공요인

- 대학(MIT, 하버드)·연구소의 혁신기술 아이디어(창업)가 자본과 결합 → 사업화로 연결 → 자생적 창업 생태계 형성
- 창업기업·성장지원 서비스기업(투자, 법률, 회계, 컨설팅 등)이 집적* → 밀접하게 협업 →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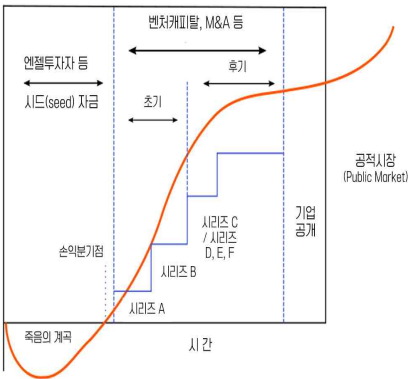
* 1천여개 이상 바이오테크 기업 및 5백개 이상 VC가 밀집 (켄달 스퀘어)

☐ 시사점

- 창업기업이 지역의 지원서비스 기업과 밀접히 교류하고 성장하는 것이 자생적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의 중요 요인
→ 경쟁력 있는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 기업 육성 필요

[참고 3] 벤처·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성장지원 서비스 역할

< 벤처·창업기업 성장단계 >

		구분	단계	설명
	초기	시드	▶ 벤처·창업기업이 첫 투자를 받아, 시제품을 생산하는 단계	
	중기	시리즈 A	▶ 수익·비즈니스 모델(제품·서비스 정식 출시)에 대한 시장성 검증 단계	
		시리즈 B	▶ 수익성을 검증받은 벤처·창업기업이 사업 확장·인력 충원 단계	
	후기	시리즈 C	▶ 시장 점유율 확대, 신규시장 개척, 他 기업 인수합병 단계	
		시리즈 D-E-F/ 기업공개	▶ 기업공개 없이 지속 투자 받거나, 기업공개(IPO) 또는 M&A를 통한 회수(Exit) 단계	

1. 시드(Seed)

- (투자) 엔젤투자자, AC : 시제품(prototype) 제작 중점 지원
(※ 투자 금액 : 수천만원 ~ 수억원 내외)
- (보육) AC : 컨설팅, 네트워킹, 후속 투자 유치 등 지원

2. 시리즈 A(Series A)

- (투자) 중·소형 VC 중심 : 본격적인 시장진출 지원
(※ 투자 금액 : 수십억원 내외)
- (디자인) 초도 시장 출시 제품 디자인 기획·개발
- (지식재산)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 보호

3. 시리즈 B(Series B)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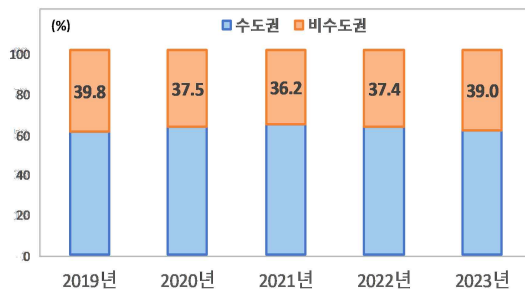
- (투자) 대형 VC : 대규모 자금조달 통한 사업 확장
(※ 투자 금액 : 수백억원 이상)
- (마케팅) 해외 진출 등 신규시장 개척 및 고객기반 확대 전략 수립
- (법률·회계) 기업상장(IPO), M&A 대비 법률·회계 자문 등

[참고 4] 창업생태계 수도권 쏠림 현황

1. 창업기업 및 벤처투자 현황

- 기술창업기업의 약 60%가 수도권에 소재
- 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은 약 80% 수준

기술창업기업 수도권·비수도권 비중
(단위 : %)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벤처투자 수도권·비수도권 비중
(단위 : %)



* 출처 : 벤처투자종합포털

2. 성장지원 서비스 기업 현황

- 투자·보육 전문기업(VC·AC)이 수도권에 집중 분포
 - 상위 VC 30개社, 상위 AC 26개社가 수도권에 소재

< 벤처투자회사(VC) 및 액셀러레이터(AC) 본점 소재지 비중 >

(단위 : 개소,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벤처캐피탈(VC)	223	90.7	23	9.3	246	100.0
액셀러레이터(AC)	262	61.5	164	38.5	426	100.0

* 출처 : 한국벤처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 협회 ('24.4월 기준)

- 전문서비스(법률·회계, 컨설팅 등) 기업도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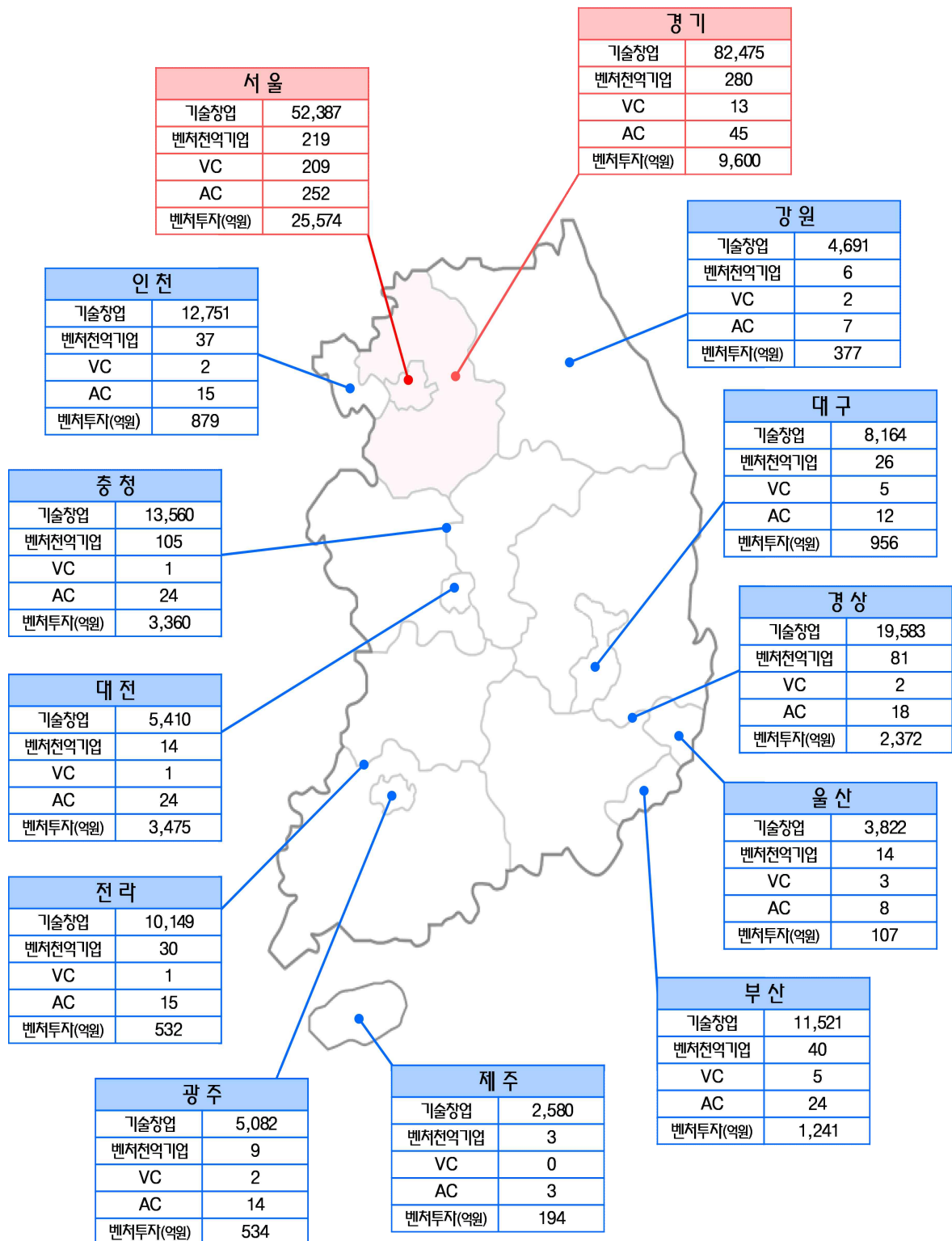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체 소재지 비중 >

(단위 : 개소,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45,579	64.3	80,991	35.7	226,570	100.0

* 출처 : 전국사업체조사 ('22년 기준)

[참고 5] 지역별 창업생태계 현황



※ (기술창업·벤처투자) '23년 연간 기준, (VC·AC) '23년말 등록기업 기준,
(벤처창업기업(연매출 1천억원 이상 벤처기업)) '22년 매출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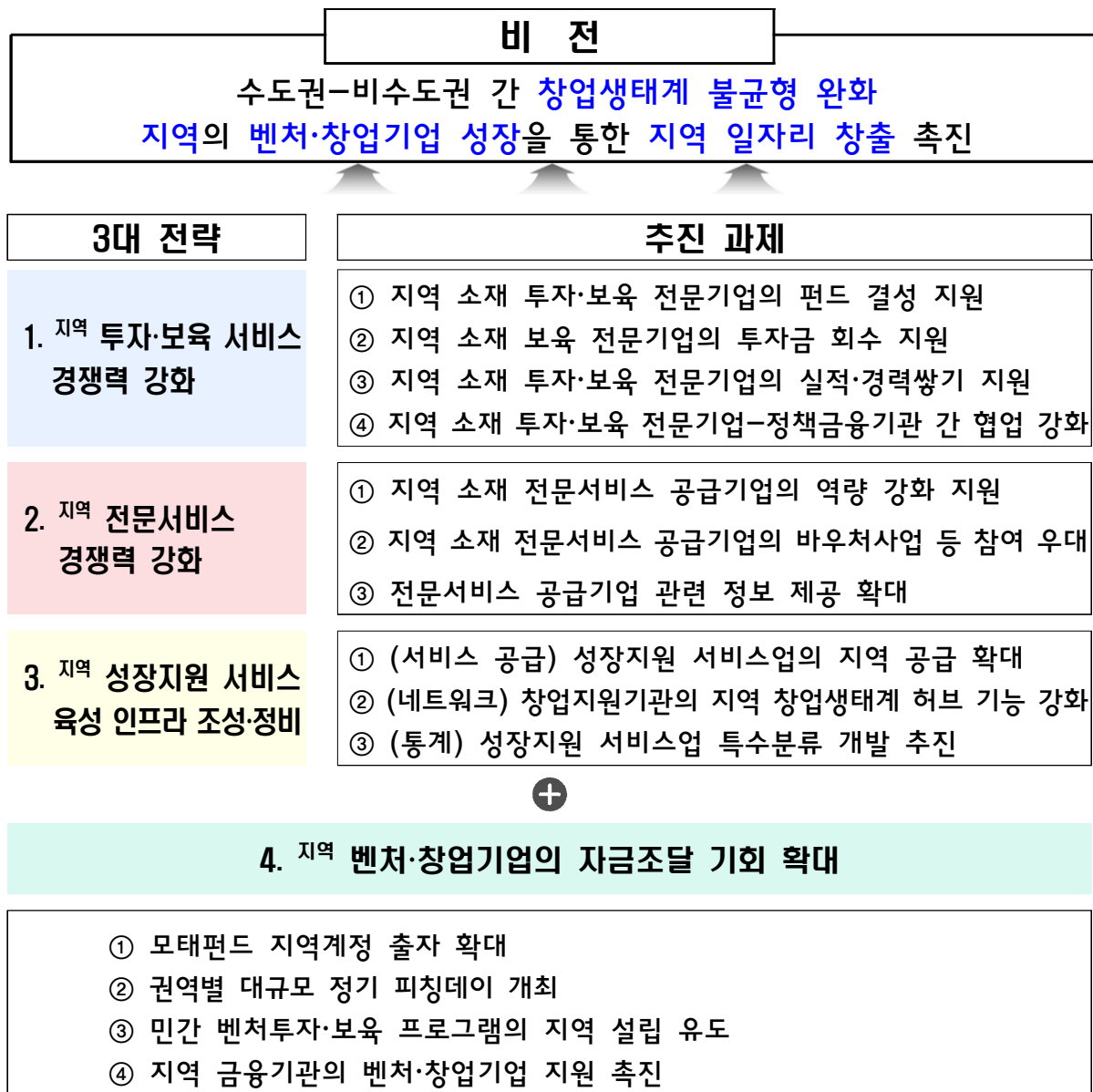
Ⅱ.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기본방향 】

- ◇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지역에서 창업 → 지역에서 성장 → 지역 일자리 창출」 촉진

【 3+1 추진전략 】

- ① 지역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
- ② 지역 전문서비스(법률·회계, 디자인 등) 경쟁력 강화
- ③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인프라 조성·정비
- ④⁽⁺¹⁾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Ⅲ. 지역의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1. 지역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 지원

- **(현황)** 지역 소재 중소형 투자·보육 전문기업은 출자자 확보 어려움 또는 자체 출자자금 부족* 등으로 펀드 결성에 애로

* 모태펀드·민간 출자자(LP) 출자분만으로는 펀드 결성이 어려운 경우, 위탁 운용사(GP)의 자체 출자 필요 → 수도권 대형 GP를 제외한 대부분은 출자 여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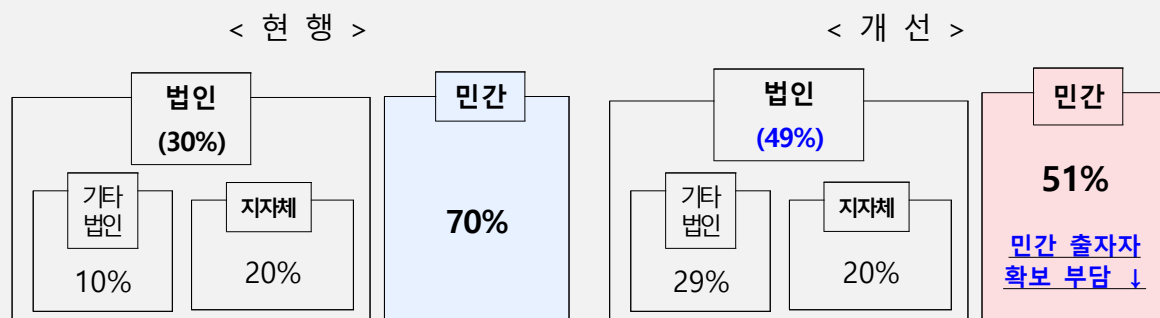
- **(정책과제)**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 지원

- ①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¹에 20% 이상 출자 시,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 확대² (30 → 49%) 중기부

1] 엑셀러레이터(AC), 개인, 법인 등이 출자하고, AC가 운용하는 투자 펀드

2] (現)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허용 비율은 최대 30%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 (改) 지자체가 20% 이상 출자시, 법인(지자체 포함) 출자 비율을 49%까지 확대

< 법인 출자 허용비율 확대 효과 (지자체 출자 비율 20% 가정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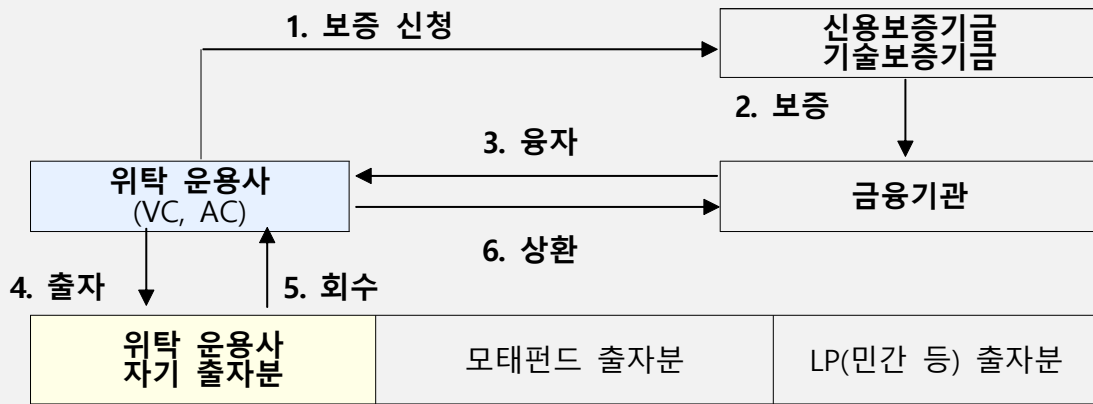
- ②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¹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² 신청 시, 평가 및 보증 우대³ 중기부·금융위

1]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 선정 기준(본점 소재지, 지방투자 실적 등) 마련('24.下)

2] 금융기관이 펀드 결성에 필요한 GP 출자금 용자시 신·기보가 보증 제공

3] (기보) 벤처펀드 특별보증 심사 시, 지역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은 평가 우대 (신보)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할인 적용 등 보증 우대('24.下)

< 신·기보 벤처펀드 특별보증 제도 흐름도 >



③ 신뢰도 제고를 통한 출자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우수한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대한 포상* 신설 [중기부]

*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및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에 공로가 있는 경우 수여

□ 지역 소재 보육 전문기업의 투자금 회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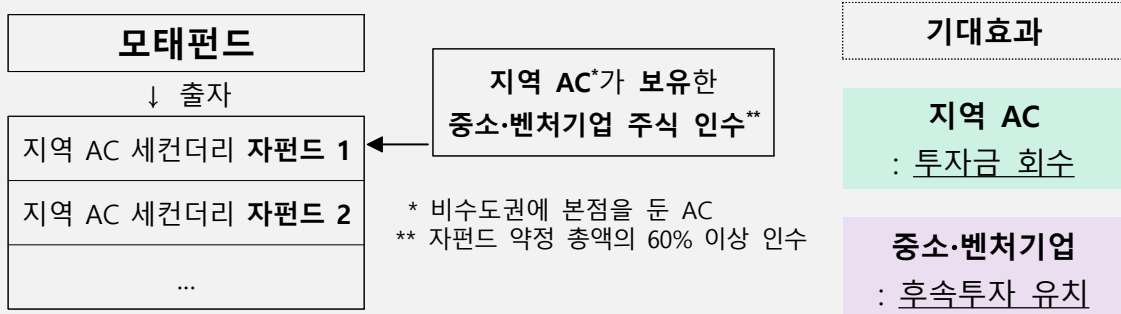
○ **(현황)** 지역 소재 보육 전문기업(AC)은 초기 창업기업(3년 미만)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금 회수에 애로

* 벤처캐피탈은 펀드 운용기간(통상 5~8년 내외) 내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비율이 47% 수준 ('23, 벤처캐피탈협회)

○ **(정책과제)**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 단계적 확대 ('24년 100억원 출자, 167억원 결성 목표) [중기부]

* 지역 소재 액셀러레이터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 주식 인수

<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구조 및 기대효과 >



□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실적·경력쌓기 지원

- **(현황)**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VC·AC)은 정부사업 등의 위탁 운용 실적과 역량을 축적할 기회가 부족

* '23년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69개社 중 지역 소재 위탁 운용사는 12개社
: (수도권) 57개 (전북) 2개 (대구) 3개 (대전) 2개 (부산) 3개 (강원) 2개

- **(정책과제)**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운용경력을 축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확대

- ①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 확대 **중기부**

* 운용사 본점이 지방(중점투자지역)에 소재하거나, 지방기업에 30% 이상 투자 제안시

- ②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단계적 확대('24년 5개소)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 선정시 지역 보육 전문기업 우대 **중기부**

* 민간 AC가 위탁 운영사로 참여해 선발, 보육, 투자유치까지 책임

- ③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 **지자체**

* 예) '21년 성동구, '성동임팩트 벤처투자조합' 결성 → 성동구 소재 AC에 위탁

- ④ 지자체가 소유한 창업·보육공간은 지역 소재 보육 전문기업 등에 우선 위탁 **지자체**

- 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항목 신설 추진 **중기·행안·기재부**

* 예)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펀드 조성 건수 및 지역 소재 VC·AC에 위탁 건수' 등

□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강화

- **(현황)**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투자활동 확대 및 투자 위험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협업 부족

- **(정책과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여 투자활동 지원 강화 **중기부·금융위**

* 신용보증기금 : 협약 既 체결('23.11월) → 협약 대상 기업 확대 검토

** 예) 신규 투자·신용보증 검토, 공동 투자업체 발굴 및 피칭데이 운영 등

2. 지역 전문서비스 경쟁력 강화

□ 지역 소재 전문서비스 공급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 **(현황)** 지역 소재 전문서비스는 사업체 수가 수도권에 비해 적고*, 역량있는 사업체도 부족**

* 전문, 과학·기술 분야 사업체 수(만개, '22년) : (수도권) 14.6 (비수도권) 8.1

↳ 전체 사업체 중 비중(%) : (수도권) 4.8 (비수도권) 2.6

** 전문, 과학·기술 분야 20인 이상 사업체 분포(%) : (수도권) 67.3 (비수도권) 32.7

< 전문서비스 분야별 주요 애로사항 >

분 야	연구개발	디자인	지식재산(IP)	법률·회계 등
1순위	연구 및 사업화	자금지원	투자지원	시장정보·홍보
2순위	인력양성	인력양성	인력양성	인력양성
3순위	시장정보·홍보	연구개발	대가 현실화	세제·금융
4순위	세제·금융	입찰정보 제공	공공민간 역할 조정	연구 및 사업화

- **(정책과제)** 지역의 중소 전문서비스 분야별 애로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 **(연구개발)** '나눔장비' 이전 취득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시 지역의 연구개발 또는 국산장비 개발 중소기업에 가점 부여 과기부

*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의 이전 취득 지원(취득금액의 10%, 6천만원 이내 지원)

-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 서비스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AI·SW 등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기부

- **(디자인)** 전문교육 과정* 및 일 경험 지원** 단계적 확대 산업·문체부

* 디자인진흥원 프로그램에 AI·SW 교육 과정 추가(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 공공디자인 분야 청년 디자이너 인턴 지원(문체부, '24년 155명)

청년 연계 K디자인 파워업 프로그램(산업부, '24년 300명) 등

- **(지식재산권)** 지역 주력산업 연계 전문인력 양성 확대 특허청

*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확대(특허청, '24년 9개교 6,800여명)

□ 지역 소재 전문서비스 공급기업의 바우처사업 등 참여 확대

- **(현황)** 지역 소재 전문서비스 공급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공급기업 수가 적어 바우처사업 등 참여 기회 부족
- **(정책과제)** 지역 소재 전문서비스 기업과 우선 매칭토록 지원
 - 바우처사업 등의 공급기업 선정 시 지역 소재 전문서비스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바우처사업 참여 기회 확대

< 분야별 지원방안 >

분 야	사 업 명	우대조치
연구개발	중소기업 R&D 지원 디딤돌 분야(중기부)	지역 주력산업 분야 우선 지원
디자인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 내 디자인 전문기업 우선 매칭 지원
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혁신 보급(중기부)	컨소시엄 선정시 가점, 우선 매칭 지원
정보서비스	AI 바우처(정보통신산업진흥원) 데이터 바우처(데이터산업진흥원)	컨소시엄 선정시 가점 (또는 우선 지원)
지식재산(IP)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한국특허정보원)	컨소시엄 선정시 가점
법률·회계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창업진흥원)	자문위원 선정시 우대

□ 전문서비스 공급기업 관련 정보 제공 확대

- **(현황)** 바우처사업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공급 기업별 정보 수준이 기업 규모 및 홍보 역량에 따라 상이*
 - * 소규모 전문서비스 기업은 소재지, 연락처, 서비스 가격 등 기본 정보만 제공
- **(정책과제)** 바우처사업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여 지역 소재 전문서비스 공급기업의 업무실적 등 홍보 및 정보 제공 확대 중기부
 - 전문서비스 공급기업 관련 정보제공 표준모델 마련·확산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내 정보제공 체계 강화방안 예시 >

- ▶ **(검색 강화)** 전문서비스 공급기업의 바우처 수행실적, 종사자수, 매출액 등에 대한 다중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수요기업의 검색 편의 제고
- ▶ **(홍보 지원)** 지역 소재 전문서비스 공급기업의 바우처 수행실적 등 홍보자료 (IR자료, 사진, 링크 등) 게시 지원
- ▶ **(기업 추천)** 이용자 만족도 평가에 기반한 전문서비스 공급기업 지역별 추천 리스트 제공

3.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인프라 조성·정비

□ [서비스 공급] 성장지원 서비스업의 지역 공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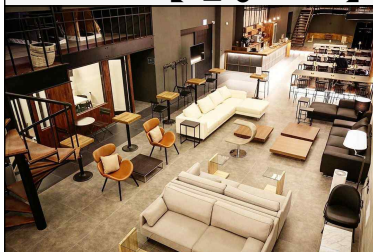
- **(현황)** 지역 소재 성장지원 서비스기업은 투자 심사역, 창업보육전문가 등 우수 인력 확보에 애로
 - 일부 창업기업은 주 업종과 병행하여 투자·보육 전문기업으로 업종 확대를 희망*하나, 체계적 지원체계 미비
 - * 예)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O社は AC 분야로 업종 확대 → 현재 청년창업사관학교 민간협업형 운영사로 활동 중
- **(정책과제)** 성장지원 서비스업 우수 인력의 지역 공급 확대 및 창업기업의 투자·보육 업종 확대 지원

① **(인력)** 창업 경험자에게 전문 교육 및 모의투자 기회 등을 제공하여 투자 심사역, 창업보육 전문가로 전환 지원 중기부

② **(정주여건)** 지자체 행정절차 신속 진행, 도시재생 씨앗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업무시설+주택) 건설 지원 지자체·국토부

* 구도심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창업시설·공동협업공간·생활SOC 조성자금 최대 70~80% 융자 ('25년부터 주택복합시설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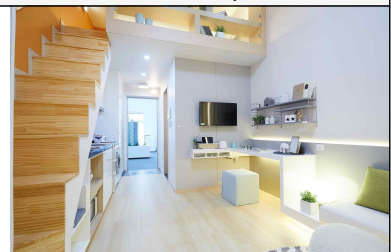
【 현장 사례 】 신촌 소재 업무복합시설 (엑셀러레이터 C社 건설)



<공동 협업공간 >



< 업무 시설 >



< 주거 시설 >

③ **(서비스 공급)** 투자·보육 업종 병행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게 전문 교육, 모의 투자·보육서비스 기회 등 제공* 중기부

* 벤처캐피탈협회, 엑셀러레이터협회,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운영프로그램과 연계

- 지역 사무소 개소 또는 지역 기업의 투자·보육을 주력사업으로 활동하는 경우 청년창업사관학교 위탁사 선정시 우대

□ [네트워크] 창업지원기관의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 기능 강화

- **(현황)** 지역 벤처·창업기업, 투자·보육 전문기업, 창업지원기관 등 지역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유기적 네트워킹 부족
 - **(정책과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창업생태계 허브 역할 강화
 - 지역 창업생태계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는 '창업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 중기부
- * 창업기업-투자자 간,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공동 포럼·IR 운영 등

□ [통계] 성장지원 서비스업 특수분류 개발 추진

- **(현황)** 현행 표준산업분류 체계에서는 벤처·창업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성장지원 서비스업 현황 파악 곤란*
- * 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중분류)'은 경비·경호업, 문서 작성업, 복사업, 인력 공급업 등으로 규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성장지원 서비스 분류 현황 >

	VC	AC	법률	회계	디자인	컨설팅	연구개발
중분류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연구 개발업
소분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자연과학·공학,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정책과제)** 성장지원 서비스업 특수분류* 개발(~'26년) 기재부·통계청
- * 현행 '표준산업분류'에서 성장지원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군을 재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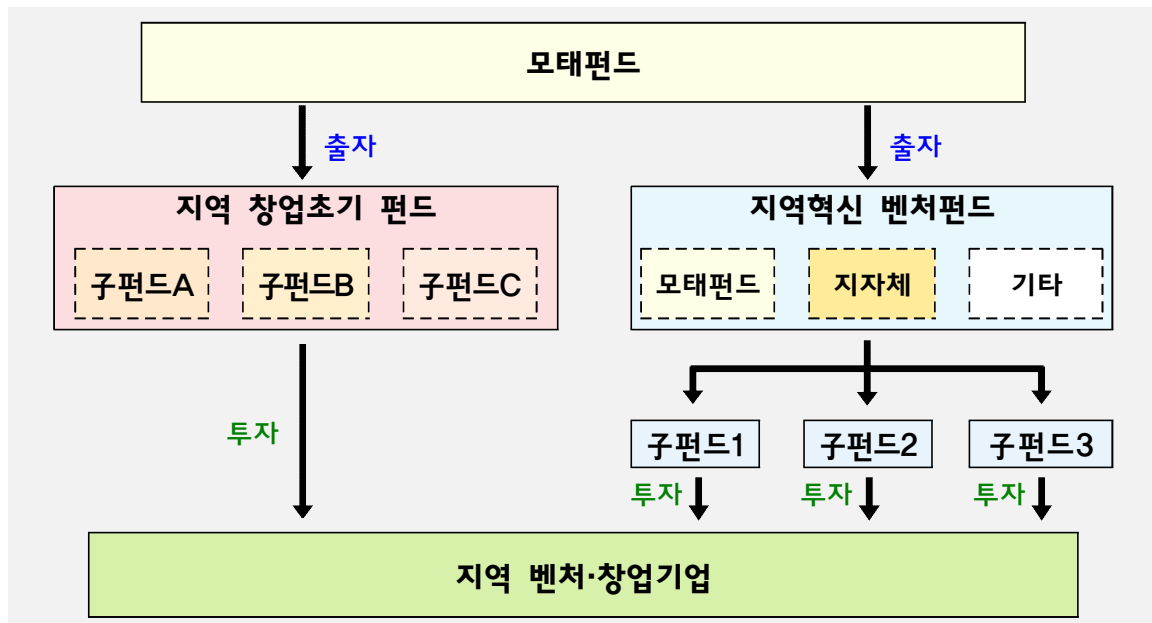
4.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

□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 확대

- **(현황)** 모태펀드 지역계정*은 지역의 벤처·창업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 예) 지역 창업초기 펀드 : 지역 소재 3년 미만 초기기업에 60% 이상 투자
지역혁신 벤처펀드 : 지역기업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펀드 조성

- **(정책과제)** 지역계정 출자규모 단계적 확대('24년 1,000억원) 중기부
→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26년)



□ 권역별 대규모 정기 피칭데이 개최

- **(현황)** 각 지자체에서 'IR 피칭데이'를 개최하고 있으나, 지역의 벤처·창업기업 수 부족으로 수도권 투자사의 참여 미흡

* VC 업계는 지역 벤처·창업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으로 '지역 벤처·창업기업과 네트워크 알선 기회 제공(34.7%)'이 최우선이라 응답('20, 중소研)

- **(정책과제)** 청년창업사관학교·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창업 지원 기관간 협업을 권역별 대규모 정기 '피칭데이' 개최 중기부

□ 민간 벤처투자·보육 프로그램의 지역 설립 유도

- **(현황)** 금융권 등 민간의 벤처·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확대 추세
- **(정책과제)** 지자체 주도로 민간의 투자·보육 프로그램 유치
 - * 예) W금융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운용 중 ('23.12월 경남, '24.3월 충북 개소) → 지역의 창업기업에 우선 투자
- 입주공간 제공, 지역 산단 입주시 임대료 감면 등 지원 지자체
- 지역의 벤처·창업 기업 발굴에 강점을 가진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과 민간 프로그램 간 협업 지원 지자체

□ 지역 금융기관의 벤처·창업기업 지원 촉진

- **(현황)** 일부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구심점으로 활동 중이나,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미흡
 - * B은행은 '20년 부울경벤처투자센터 개소 → 지역 내 26개 기업에 673억원 투자
- **(정책과제)** '지역 창업초기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시, 중점 투자지역의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경우 가점 신설* 중기부
 - * 지역 금융기관이 출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부여

IV. 기대효과

◇ 지역 창업생태계 성숙 단계별 맞춤형 과제 마련

⇒ 각 지역의 창업생태계가 상위 단계로 성장하면서, 자생력을 갖추고, 새로운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

형성기 → 성장기	대 상	주요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VC·AC의 '성장 씨앗' 심기 ▶ 지역 창업의 토대 확장 	VC·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 소재 VC·AC에 우선 위탁 · 지자체가 소유한 창업·보육공간은 지역 소재 보육 전문 기업에 우선 위탁 · 신·기보와 지역 VC·AC 간 협약 체결
	벤처·창업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창업초기 펀드 단계적 확대 · 지역 금융기관의 벤처·창업기업 지원 촉진 · 민간 벤처투자·보육 프로그램 지역 유치
⇒ 자생력을 갖춘 생태계로 발전 (예: 지역 내 벤처·창업기업 및 VC·AC 수 증가 등)		



성장기 → 성숙기	대 상	주요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VC·AC의 실적·경력쌓기 ▶ 지역 기업의 도약(step-up) 	VC·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VC·AC의 펀드 결성 지원 및 투자금 회수 지원 ·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 VC·AC 가점 확대
	벤처·창업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 벤처펀드 단계적 확대 · 권역별 대규모 정기 '피칭데이' 개최
⇒ 글로벌 수준의 창업생태계로 성장 (예: 톱티어(Top-tier)급 VC·AC 등장 등)		

V. 향후 추진계획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기관
-------	------	-------

① 지역 투자·보육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지자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 시, 지자체를 포함한 법인의 출자 허용비율 확대 (30% → 49%)	'24.3Q	중기부
■ 지역의 우수 투자·보육 전문기업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신청 시, 평가 및 보증 우대	'25.1Q	중기부/금융위
■ 지역의 우수한 투자·보육 전문기업 대상 포상 신설	'24.4Q	중기부
■ 지역 AC 세컨더리 펀드 출자규모 단계적 확대	'25.1Q	중기부
■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 확대	'24.4Q	중기부
■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단계적 확대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위탁 운영사 선정 시 지역 보육 전문기업 우대	'25.1Q	중기부
■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기업에 우선 위탁 운용	'24.3Q	지자체
■ 지자체가 소유한 창업·보육공간은 지역 소재 보육 전문기업 등에 우선 위탁	'24.3Q	지자체
■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표 신설 추진	'24.2Q	중기부/행안부/기재부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지역의 투자·보육 전문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여 투자활동 지원 강화	'24.3Q	중기부/금융위

② 지역 전문서비스 경쟁력 강화

■ '나눔장비' 이전 취득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시, 지역의 연구개발 또는 국산부품 개발 중소기업에 가점 부여	'25.1Q	과기부
■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 서비스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AI·SW 등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 운영	'25.1Q	과기부

정책 과제	추진시기	부처·기관
■ 디자인 분야 전문교육 과정 및 일 경험 지원 단계적 확대	'25.1Q	산업부/문체부
■ 지식재산권 분야 지역 주력산업 연계 전문인력 양성 확대	'24.2Q	특허청
■ 지역 소재 전문서비스 공급기업의 바우처사업 등 참여 우대	'24.3Q~	중기부/산업부 과기부/특허청
■ 바우처사업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여 지역 소재 전문서비스 공급기업의 업무실적 등 홍보 및 정보제공 확대	'24.4Q	중기부

③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육성 인프라 조성·정비

■ 창업 경험자에게 전문 교육 및 모의투자 기회 등을 제공해 투자 심사역, 창업보육 전문가로 전환 지원	'24.3Q	중기부
■ 지자체 행정절차 신속 진행, 도시재생 씨앗융자 등을 통해 민간 업무복합시설 건설 지원	'25.1Q	지자체/국토부
■ 투자·보육 업종 병행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게 전문 교육, 모의 투자·보육서비스 기회 등 제공	'25.1Q	중기부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 역할 강화	'24.3Q	중기부
■ 성장지원 서비스업 특수분류 개발 추진	'24.2Q	기재부/통계청

④ 지역 벤처·창업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 단계적 확대	'25.1Q	중기부
■ 권역별 대규모 정기 '피칭데이' 개최	'25.1Q	중기부/중진공
■ 지자체 주도로 민간의 투자·보육 프로그램 유치	'24.3Q	지자체
■ 모태펀드 '지역 창업초기' 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중점 투자 지역 내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 시 가점 부여	'24.4Q	중기부